



KC **GREEN** HOLDINGS

2017 MARCH

KC NEWS LETTER VOL.89

목 차



1. **KC코트렐(주), 환경부 장관 – 환경기업 CEO 간담회 참석**
2. **KC솔라에너지(주), 창원 ‘빛길프로젝트’ 협약 체결**
3. **유양기술(주), 회사 창립 19주년 기념식 개최**
4. **KC글라스(주) Glass Frits 전기용해로 재가동**
5. **KC환경서비스(주), 1분기 유닛 회의 진행**

KC코트렐(주), 환경부 장관 – 환경기업 CEO 간담회 참석

지난 3월 8일, KC코트렐(주) 서동영 대표이사는 한국환경산업협회가 개최한 ‘환경기업 CEO 간담회’에 참여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KC코트렐을 비롯한 한국환경산업협회 회원사들은 환경컨설팅 등 환경서비스 분야의 시장 창출과 해외시장 개척의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환경산업의 지능화와 융합화, 환경시설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 사업 확대를 향후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내 환경기업의 참여 확대와 지자체 발주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적 걸림돌 해소, 해외 진출시 중소기업들의 마케팅 애로 해소, 부품 소재와 운영기술의 융합 사업화, 수처리 시장에서 전문회사의 역할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환경기업 CEO 간담회를 통해 환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전방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기존 환경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던 전략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개발된 기술을 실증 사업화하고 해외진출시 겪던 자금절벽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어)



주요 사업으로 환경부는 올해 미래환경산업펀드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이미 개발된 환경프로젝트의 투자와 유망환경기업에 대한 투자를 담당하게 되는데 올해는 정부예산으로 200억원을 출자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신기술 시제품에 대한 실증 상용화 테스트 베드로서의 환경산업연구단지도 올 5월말 준공 예정이다. 현재 50여개의 환경기업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로 환경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을 융합한 전진기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신규 지원정책을 통해 유망환경기업의 육성에서 실증화, 자금확보, 해외진출이라는 일련의 지원체계를 갖추어서 올해 정부지원을 통한 해외 수주실적을 1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이다. 지난해 전체 해외 환경수주 실적은 약 9조원이었으며 이중 정부가 지원하여 거둔 실적은 0.9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BI가 발표한 세계 환경시장은 약 1조 6백달러이며 2020년 1.3조원으로 확대되는 급성장분야의 하나이다.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아직 역사가 길지않은 환경산업 분야의 통계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올 해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샷, 원킬로 관리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끝)



KC솔라에너지(주), 창원 ‘빛길프로젝트’ 협약 체결

KC솔라에너지(주) 이태영 대표이사가 안상수 창원시장, 이경로 한국동서발전 미래사업단장과 ‘빛길프로젝트’ 실시협약서에 서명하였다. 이 협약에서 KC솔라에너지와 한국동서발전은 540억원을 들여 마산합포구 진북면 진북산단 입주기업 46곳과 창원시 소유 공공시설 20곳에 2020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

KC솔라에너지와 한국동서발전은 20년간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영하며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는 형태로 투자비를 회수하고 수익을 남긴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장소를 제공한 대가로 창원시와 진북산단 기업들은 매년 사용료를 받는다.

창원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전체가 가동을 시작하면 연간 4만7천 300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창원시 전체 주택용 전력수요의 3.6%에 해당하는 규모로 1만3천 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끝)



유양기술(주), 회사 창립 19주년 기념식 개최

지난 23일, 유양기술(주)은 회사 창립 1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은 ‘가정의 소중함’을 주제로 한 이주덕 전무의 기념사와 노사 상생의 협력과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 올해의 유양인 및 모범사원 시상의 직원 격려 순서로 진행되었다. 유양기술은 작년 6월 KC 관계사에 편입되었으며, 포스코를 비롯하여 국내외 산업현장의 고압가스 설비에 대한 진단 및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창립 19주년을 맞아 더욱 더 성장의 날개를 펼치는 유양기술의 모습을 기대한다. (끝)



KC글라스(주) Glass Frits 전기용해로 재가동

지난 2016년 10월 17일부터 가동 중단되었던 전기용해로(40톤)가 약 160일의 긴 휴식기간을 끝내고, 2017년 3월 30일부터 주 생산품인 첨단유리소재 Glass Frits(이하 Frits)의 생산을 위해 불을 붙였다(Heat Up).

신소재 분야 개척 및 수익모델 개발의 일환으로 2012년 7월에 성공적으로 준공된 전기용해로는 전 세계적으로 단 3개뿐인 시설로써,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Frits 생산시설이다. 기존 사업이었던 유리병 생산과 더불어 KC글라스(주) 유리소재사업 부문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 유가하락에 따른 Frits의 수요 침체 장기화 및 재고량의 증가로 부득이하게 임시 생산중단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전기용해로의 정상가동을 통하여 KC글라스(주)는 2016년 8월에 로보수를 마치고 정상가동중인 유리용해로와 함께 유리소재사업에 대한 사업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2016년 2월부터 시작한 금속소재사업과 더불어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힘차게 정진해 나갈 예정이다.(끝)

<전기용해로 Heat Up>



<Cullet 투입 및 생산>



KC환경서비스(주), 1분기 유닛 회의 진행

KC환경서비스(주)는 3주에 걸쳐 관리, 영업, 운영/공무 유닛 회의를 진행하였다. 합병 후 처음으로 진행된 유닛 회의에는 전주, 여수, 창원사업부 담당자들과 KC환경서비스 경영관리팀의 박경식 팀장, 이현우 대리, KC그린홀딩스의 성창제 대리가 참여하였다.

각 유닛별 주요 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리	영업	운영/공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사합병에 따른 규정 통합(복리후생/취업규칙 外)-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한 프로그램 및 관리체제 일원화 논의 (소프트웨어/ 회계처리방법/전자결재 外)- 상조회서비스 도입(ex.예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순환기본법 최근 동향 및 각 사업부의 대응방안- 소각부담금 감소가 영업의 경쟁력과 직결- 각 사업부 영업현황, 단가 공유- 폐기물 배출량 감소 전망에 대한 의견공유- (기타)우레탄 재활용 사업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회수효율 가이드라인(R1)방법의 적정성 논의- 에너지회수효율 상승을 위한 측정 및 계측기 설치방법- 설비/수선유지 현황 공유